

林昌烈 통산부장관 초청 에너지 관련인사 간담회

「최근 에너지 동향과 정책방향」 주제 강연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9월 12일 인터 컨티넨탈 호텔 오키드룸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그리고 에너지관련 기관·단체 주요인사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林昌烈 통산산업부 장관을 초청하여 「에너지업계 관련인사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에너지협의회 李宗勳 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 사정은 경쟁상대국들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며, 또한 開途國들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증가는 계속해서 資源의 수급불안과 고가격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망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미래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新再生에너지의 기술개발과 原子力의 합리적 이용등 에너지 利用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적 환경협력의 증진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초청연사로 참석한 林昌烈 통산산업부 장관은 “최



근 에너지 동향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우리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에너지 輸入은 급증하고 있어 國際收支와 산업경쟁력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연탄 등 저가의 輸入에너지를 환경설비를 갖추면서 사용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分野에서도 우리 經濟와 國際收支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資源貧國인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를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해외자원의 開發輸入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원

의 확보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모든 산업의 開放化 추세에 맞추어 우리 에너지산업도 개방이 불가피하므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하며, 이러한 정부의 施策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消費主體인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망되고 특히, 에너지業界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본보 최근 에너지동향과 정책방향 참조).

WEC 97 집행이사회 방콕 개최

차기 議長 선출, 2004 總會개최지 선정

세계에너지회의(WEC)의 97년도 집행이사회가 11월 12~14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며, 한국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한국에너지협의회 회원사에서 약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년도 집행이사회에서는 WEC의 의사결정방식 일부 변경, 차기의장 선출 및 사무총장 선발전 등 조직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되고 결정될 예정이다. 논의될 주요 의제를 간략히 소개한다. 집행기구 조직 변경: 지난 6월 13일 런던에서 열렸던 WEC회원국 의장단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기존의 집행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그대로 유지하되, 가칭 관리위원회(Govern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 집행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임원 선출 및 선임

- 집행이사회 의장 선출: 현 의장 J.W. Baker(영국)씨의 후임으로 차기의장(1998~2001)

선출에는 J. Adam 및 J. L. Alquerque씨 등 2명이 입후보한 상태이며, 이들은 현재 각각 WEC 미국 및 브라질 국내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 집행이사회 부의장 선출: 부의장 5명중 J. L. Alquerque(브라질)씨의 임기만료로 후임자를 선출하며,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역시 남미국가에서 후임자가 지명,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 상임위원회 위원 10명 선임: 행정, 기획, 연구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신규위원 10명 선임

- 차기 사무총장 선발: 현 사무총장 I. D. Lindsay씨의 퇴임(1999. 2. 1)에 따라 후임 사무총장 선발절차에 대해서 의장이 보고

워크프로그램 결정: WEC가 1998~2001년간 수행할 워크프로그램의 토픽을 결정하고, 연구결과 발표도 기존의 총회 기점 3년주기 동시수행 방식에서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일정수의 최종보고서를 매년 분산 발표하는 형태로 변경할 예정이다.

총회 및 집행이사회 개최지 결정

- WEC 2004년 제19차총회: 호주 등이 유치신청 중

- WEC 1999년 집행이사회: 폴란드가 유치신청 중

WEC 공로상 제정: 98년 휴스턴총회부터 3년마다 세계 에너지산업 및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가 크고, WEC 활동을 적극 지원한 국제적 저명인사 또는 기관에 공로상과 상금을 수여하고자 하며, 첫 수상자를 금년 집행이사회에서 선정.

연구프로젝트 발표: WEC가 지난 2년간 수행한 에너지부문 자금조달 관련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발표.

태국 에너지 날: 금년도 집행이사회 개최국인 태국이 자국의 에너지산업 현황을 발표하는 세미나 개최.

이외에도 회원국 가입 및 탈퇴, 중앙사무국 98년도 예산 및 연회비 인상, 중앙사무국 매니저1명 추가확보, 상임위원회 활동보고, 98년도 신년메시지 등 많은 의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